

## 대통령실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두고 與野 온도차

민주당 "연구자들에게 진정한 사과 없어"

국힘 "윤 정부, 과학 R&D 환경 개선 진심 확인"

대통령실이 3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전지역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관련기사 2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R&D 예산 증액은 환영하지만 예산규모도 시기도 없어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걸 수 없다."면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 당시 대통령은 과학계를 '카르텔'이라고 비난하며 폭력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근거 없는 비난으로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과학계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R&D 예산대폭 증액을 발표하면서도 지난해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지목했던 과학계 카르텔에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과학계 비리온사처럼 여겨졌던 카르텔이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R&D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 몇 개 월만에 카르텔이 해결됐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 여전히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물론 연구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 "R&D 예산 증액이 현장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대해 사과도 없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아닐까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과학기술을 걱정한다면 과학자들에게 응시를 빌어야 한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현장의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면서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R&D 예산 증액"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대통령의 발표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과학 R&D 환경 개선에 진심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전시민 과학계 현장 연구자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R&D 예산 조정에 대한 대전시민과 과학연구현장의 우려와 비판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1월 16일 '글로벌 기술패권 R&D 정책방향과 대전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여 R&D 예산 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또한 11월 21일에는 국민의힘 중앙당 혁신위원회가 대전을 방문하여 R&D 관련 거버넌스체계 개선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2024년도 예산안에 이공계 우수장학금 확대 등 R&D 예산 6,000억 원을 추가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연구생활 지원금,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제2대덕연구단지 구축, 유성구 K-퀀탈스퀘어 조성, 우주산업 테크노포드 구축 등 다양한 과학계 인프라 투자 공약 제시하며 대한민국과 대전, 그리고 과학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특히 "우리 당 이상민 국회의원(유성구)도 R&D 예산 세출예산의 5%의 무법제화, 삭감된 R&D 예산의 원칙적 복원 등을 공약에 담아 대한민국과 대전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실현과 실천으로 답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대전시민과 과학계의 격정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또한 '2025년 R&D 예산의 대대적 확대 편성 현실화'와 '과학수도 대전'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 서천군,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충남 서천군이 3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내 나무를 갖고·심고·가꾸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비인면 상내리 일원에서 300여명의 각급 기관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자들은 비인면 상내리 산3-1번지 내 2ha 규모에 낙엽송 6000본을 식재했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자원 육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온난화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올해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15ha의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정복 기자



## 늘봄학교 시행 한달만에 100곳 늘어... 참여 학생 13만6000여명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봐주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3월 한달간 100곳 가까이 늘어 전국 2840여곳으로 확대됐다. 참여 학생도 1만4000여명 증가해 13만6000명이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정부 서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늘봄학교 참여 현황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이번 1학기 정부 예산치(2000개교)보다 37% 많은 2741개교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충남·전북·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4월 중으로는 서울과 광주가 늘봄학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의 48%가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교

확대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처음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은 정책이 현장에 정착되고 있다"며 "그간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했던 가정에선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참여학생은 지난 4월 대비 1만 4000명이 증가했다.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약 25만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수도 증가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만900명에서 1

만7197명으로 한달만에 약 50%가 증가했다. 이 중 81.3%가 외부 강사이고, 18.7%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됐다. 경기도는 58.1%가 외부 강사이고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한 상황이다.

전국 2838개 늘봄학교에는 1개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인력이 배치됐다. 기간제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총 3634명이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돼 늘봄 신규 행정업무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모두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 현장에 4차례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관련 회의도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힘을 쏟는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늘봄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포트홀 위험' 민원에 대전시의회 '신속 보수'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에 올해 1분기 동안 접수된 민원 가운데 도로교통 분야 민원이 가장 많았다.

대전시의회가 올해 1분기(1~3월) 총 29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주차차 단속, 시내버스 노선, 신호등 시간 조정, 횡단보도 설치, 해빙기 도로 파임(포트홀) 보수 등 도로

교통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약 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교육복지 분야 민원(약 17%), 경제 과학 분야 민원(약 14%)이 주를 이뤘다. 나머지는 주택건축, 문화관광, 체육건강 관련 민원들이다.

반려동물공원,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

물에 대한 민원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는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에 나섰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 등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환 기자

4월 과학의달

대한민국 과학축제  
KOREA SCIENCE FESTIVAL

#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2024. 4. 25(목) - 28(일) |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

주최

주관



#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

## 공공 최초 '주4일 근무제' 도입... 도·도 공공기관 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



민선8기 힐튼충남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과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

▲국기소멸 위기 "마지막 끝판왕 지키자"  
김태홍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기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백화전성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현재를 마지막 끝판왕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김 지사는 우선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충남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전부 해소한다.

김 지사는 "종교단체 시설도 돌봄에 적극 활용해 아이들을 어디서나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에 설치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김 지사는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라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 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역 도유지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0~2세 자녀 둔 직원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도 견인해 나아간다. 도는 우선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등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 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 간 700여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현금성 지원 대상·규모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도 내놨다. 먼저 출산 시 국가와 지자체가 제각각 펴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습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현재 출산 시 국가 이외에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주고 있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 제고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요즘 인기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 이하로 같아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혼보다 기존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제기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OECD 국가의 혼외 출산비중은 41.9%이지만,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한데,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전략적 검토 제안은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놨다. 김 지사는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도 정책 제안으로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 원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결혼 출산이 활발한 청년층의 순자산은 844조 원에 불과하다"라며 "결혼을 하려는 청년층의 각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을 훨씬 넘는 짐을 감안해 결혼·출산 시 체계적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환 기자











# 한국교총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해야”

## 교총 등 공적연금강화공대위, 1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남실)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설문조사에 ▲공무원연금 보편료 인상 ▲기존 퇴직자 연금수령액 동결(불가인상 미반영)이라는 향후 공무원연금 개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문항을 슬쩍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달 10일 공론화위원회 의제회의단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정부와 당사자

가 대화기구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도록 합의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연금 동결 등 미합의 의제를 시민대표단에 제시하며 개악의 여지를 깔아둔 것이다. 이에 연금공대위는 지난 달 28일 공론화위원회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총력 지지 결의를 밝혔다. 연금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시민대표단에 방언을 묻는 것 자체가 공무원연금 당사자를 배제한 채, 여론몰이로 개악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60만 퇴직공무원과 130만 공무원, 50만 교원들은 분노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연금을 현재까지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금 동결을 언급하는 것은 몰상식이고 무엇인가”라며 꼬집었다.

연금공대위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면서 정부와 국회는 별도 기구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서면합의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의 6.5%~39%에 불과하고,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배우자까지 제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도

도리어 연금 동결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금공대위는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 없이는 어떠한 공무원연금 논의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연금 동결 등의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금공대위는 ▲퇴직공무원의 연금 한시적 동결 시도 즉각 중단 ▲공무원연금 보편료 인상 시도 즉각 중단 ▲2015년 대타협 합의사항 우선 이행 및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즉각 중단을 공론화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복기자



금산교육지원청 ‘은하수를여행하는 우리 가족’ 캠프 실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은 교육복지이전망구축사업 프로그램으로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나로우주과학관에서 ‘은하수를여행하는 우리 가족’ 캠프를 실시했다.



천안교육지원청, 충남소년체육대회 축구 ‘씩쓸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은 2일 막을 내린 제52회 충남소년체육대회 축구대회에서 남초부와 남중부를 ‘씩쓸이’했다. 3월 30일부터 시작된 축구대회는 보령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남초부는 성거초등학교와 천안초등학교가 결승전에서 맞붙어 성거초등학교가 우승하였고, 남중부는 광풍중학교와 천안중학교가 경기를 진행해 광풍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산교육지원청 ‘미음 여는 창렘·소통’유대 강화 이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3일 교육실에서 4월 생일을 맞은 직원들과 함께 ‘미음여는 창렘·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시간에서는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이 모여,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나누며 소통하고 마음을 여는 시간을 마련했다.



“모두가 하나되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자리”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기남)은 지난 2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 연수를 실시했다. 관리자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통합교육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수업에 대한 이해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했다.



부여교육지원청, 아인이동학버스 현장 안전점검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배)은 4월 3일~4일 이틀간 관내 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점검 및 운행노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서산교육지원청,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동)은 제 ‘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산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생각의 변화, 모두가 행복한 서산교육’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3년 서산 특수교육대상학생 예술제 ‘노래’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김채연(서산서남초등학교)의 “모두 다 꽃이야” 노래를 시작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 당당한 수영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들 세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양정숙 강사님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서산교육지원청은 4월 한달 동안 점자명합체자 주간운영, 장애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기동 교육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4월에 진행될 다양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세종시교육청, 세월호 10년의 기억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의 달’ 운영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26

일까지 세월호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시교육청은 4월을 ‘기억의 달’로 지정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추모행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원을 추모하기 위해 대전현충원 순직 교사 묘소 참배, 안산 416 기적전시관 방문, 교육청 전 직원 묵념 및 추모시 낭송,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기억공간 운영 등 여러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추모 배

너 게시, 노란 배지 달기, 추모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 등을 진행하여 세월호 참사 10년의 기억을 되새기고자 한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1일(목)에 세월호 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 극단인 ‘노란리본’을 초청한다.

‘노란리본’은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10년간 걸어온 여정을 연극제로 진행한 다.

이와 함께 세종시 각급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등굣길 노란리본 달기 운동 등을 실시한다.

세종=김태성기자

## 2025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확정 공고

충남교육청, 소아당뇨 학생 지원 위해 제1형 당뇨 우선배정

신설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반영한 고입전형 계획 발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충남의 교육환경 변화와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고,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과 관련 법규를 적용한 ‘2025학년도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제1형 당뇨 우선배정’은 전국 최초로 2025학년도 천안과 아산

지역 교육감전형에서 실시되는 고입전형 방법으로, 소아 당뇨로 고통받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전형 방법이다.

또한 ▲자사고,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중원 방법 변경 ▲지역 배제배정 아산시 둔포면 적용 ▲외국인 유학생 전형 신설 ▲봉사활동 시간 20시간 확대 적용

등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교육감전형 아산학군에 아산중부고등학교가 개교(2025. 3. 1.)됨에 따라 학교 선택 폭이 넓어져 학생들의 안정적인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기에는 외국어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반고(특성화학과) 입학전형이 실시되고 ▲후기에는 일반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이 실시된다.

김정환기자

## 예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위촉 및 제1차 협의회

특수 교육 협의실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 위해 개최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중하)은 2일 예산 교육 지원청 별관 1층 특수 교육 협의실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한 2024학년도 예산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2024 예산 장애 학생 인권 지원단은 예산교육지원청 이력선 교육 과정을 단장으로 교육 전문직, 특수학교 교감, 경찰서 성폭력 담당, 성교육 전문가, 인권

## 청양 정산중, 단위학교 성과평가 3년 연속 최우수교 선정

2023년도 단위학교 성과평가... 충남 도내 중학교 142개교 중 1위

정산중학교(교장 임종필)가 도내 14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3년도 단위학교 성과평가에서 1위에 해당하는 최우수 학교부서에 선정되었다.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성과평가는 성과관리를 통한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한 정책의 유지·확대·축소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평가항목은 주요업무추진(핵심 성과지표 KPI) 평가와 단위학교 업무 노

력도 등이며, 단위학교 업무노력도 평가는 연구활동, 예산집행 현황, 학교운영 실태 등을 평가한다.

성과평가 유공 표창 대상자인 이지운 주무관은 “3개 중학교가 통합된 학교로서 기숙사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예산운영 등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직원들이 협력하여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임종필 교장은 “3년 연속으로 최우수 교에 선정된 학교는 본교가 유일할 것이



며 전임 서정문 교장을 중심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이룬 성과에 감사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청양=정삼범기자

## 당진교육지원청, 당진

### 외국어교육센터 캠프 시작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당진의국어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영어 일일캠프와 당진교육지원청 내 시설을 활용한 외국어 방과후캠프를 시작했으며, 3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초등 외국어 캠프’ 가 문을 열었다.

원어민영어교사(3명)와 중국어 강사(1명), 겸임교사(2명)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력 중심 외국어 및 외국 문화 교육의 장을 활짝 열었다.

한편, 지난 2일 초등영어 일일 캠프에 참가한 탐동초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 실제 주어진 상황에 대해 영어로 해결하는 활동에 참여해, 서로의 생각을 영어로 듣고 답하는 활동을 통해 영어와 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등영어 캠프’와 ‘3월 글로벌캠프’도 운영될 예정이며, 방학 기간에는 별도의 영어, 중국어 캠프가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체계를 통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로 당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당진=최근수기자



##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 방과후아카데미, 마음버스 이용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들은 매월 1회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이하 마음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마음버스’는 상담 집단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은 마음버스에 탑승해 자율성경관형검사(스트레스 측정)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심리상담을 받았다.

‘마음버스’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월 1회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앞 당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송병배기자









특정

밀원수 밤나무 식목 행사



최원철 공주시장은 4일 오후 1시 30분 금학생태공원에서 열리는 다목적 밀원수 밤나무 식목 행사에 참석.

건강한 생활습관 특별교육



김동일 보령시장은 4일 오후 2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뇌·심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특별교육 참석.

시립합창단 반주자 위촉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산시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참석, 오후 2시 30분 시청 시청실에서 열리는 시립합창단 반주자 위촉식 참석, 오후 3시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현대오일뱅크와 함께하는 대학입시설명회 참석.

균형발전사업 계획 수립 특강



박빈근 금산군수는 4일 오후 4시 금산군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역발전전략과 균형발전사업 계획 수립 특강 참석.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활동 펼친다

금산군, 화재 발생 현황 감시 및 순찰·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등 추진



금산군은 식목일과 청명·한식이 이어지는 4월 첫번째 주말인 6일부터 7일까지 금산군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명·한식 특별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활동은 식목일과 청명·한식 이 이어지는 4월 첫번째 주말인 6일과 7일에 성묘객, 상춘객, 입산객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활동은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활동반은 총 288명이 10개 읍·면으로 배정돼 산림인접지역을 순찰하며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활동반은 이상유무를 수시로 전담해 현장 밀착 신속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2명을 산림재해예방센터에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해 초동진화대세를 갖춘다. 이외에도 특별활동을 추진 중 산

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박빈근 금산군수는 "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청명·한식 기간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객과 등산객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4월 5일 식목일은 나무 심기를 통한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날로 식목 활동을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날이며 청명과 한식은 각각 4월 4일과 5일로 조상을 기리기 위해 선현의 묘를 찾아 성묘한 뒤 묘를 단정하고 봄꽃을 심는 활동을 하는 날이다. 이정복 기자

보령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 추진

보령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이월체납액 연간 징수목표액 30억 원 중 21억 원(목표액의 70%) 이상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과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해 재산을 압류 처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업체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부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상황을 확인하고 누락된 세원이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보령시는 앞서 2023년도에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일반회계 기준 징수목표액 36억 원 대비 144%에 해당하는 52억 원을 정리해 도내 3위의 성적을 달성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겐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우리/동네



교통약자 편의·안전 강화 서산시 그늘막 의자 설치

교차로 4곳에 그늘막 의자 10개 시범 설치

충남 서산시가 3일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그늘막 의자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4월 1일 교통약자의 보행이 많은 서산경찰서, 석림사회복지관, 서산의료원, 석림주공 3단지 아파트 교차로 등 4곳에 10개의 그늘막 의자를 처음으로 시범 설치했다. 그늘막 의자는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쉴 수 있도록 접이식으로 특별 제작돼 그늘막 한 곳 당 2개씩 설치됐다. 시는 그늘막 의자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해 추후 설치,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그늘막 의자 도입이 거동하기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 대기시간 휴식 장소를 제공해 편의를 증진하고 무단횡단을 예방해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어르신들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그늘막 의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공주시, 주민 밀착형 찾아가는 순회진료소 추진

기초건강검진 및 진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 2일, 정안면 장원보건진료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밀착형 찾아가는 순회진료소'를 시행했다. 공주시보건소와 공주의료원이 협력해 추진한 '주민 밀착형 찾아가는 순회진료소'는 지역 간 필수 의료 공급 문제로 발생하는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밀착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보건소의 의료인력은 이날 관내 의료 취약지역 진료소를 순회하

며 기초건강검진, 구강검진 등의 기초건강검진과 재활의학과 진료, 한방진료와 함께 건강생활실천 사업 교육(태매, 금연, 감염병 예방 등)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장원보건진료소에서 이어 향후 양화보건진료소에서 2차 순회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남 공주시 보건소장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순회 보건진료소를 계기로 관내 보건 의료자원이 상시협력해 지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관리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서산시, 2024년 경로당 신축사업 관계자 교육 실시

올해 27억 1천300만원 투입해 6개소 경로당 신축



충남 서산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로당(마을회관) 신축사업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올해 경로당 신축 대상으로 선정된 6개 마을의 사업 추진위원장과 설계사 대표, 읍면동 담당

자에게 사업 추진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진행은 ▲사업수행 절차 ▲보조사업자 이행사항 ▲설계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이뤄졌다. 시는 어르신들의 자립과 건강, 안전을 고려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 20여 명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심도 있게 전달했다. 특히 설계 시 단층 설계, 남녀 분리 설계, 마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구현 및 접이식 문 설치를 통한 실내 개방감 확보, 범용 디자인을 반영한 설계 등 우수사례를 안내했다. 한편 시는 올해 경로당(마을회관) 신축사업 예산으로 27억 1천 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20평 1개소, 40~45평 5개소 등 6개소의 경로당 신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신축될 경로당이 주민이 화합하는 마을회관 기능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겸용한 공간으로 재탄생해 어르신 여가활동 공간 조성 및 주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산시 김일환 복지문화국장은 "마을 주민들과 설계사, 시공자가 합심해 마을 속사업인 경로당 신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더욱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금산인삼 신상품 개발사업 지원

금산군, 자원사업 공모대상자 10곳 선정

금산군은 올해 젊은 소비층 겨냥 및 세계화에 앞장서기 위해 인삼제조업 신상품 개발 지원사업 공모 개발사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 관내 48개 업체가 도전해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자가 확정됐다. 군은 차별화된 인삼 제품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금산인삼 제품의 상품 다양성 확보와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선정평가위원회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공개모집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새로운 젊은 소비층 겨냥, 시장성 확보, 수출 역량 우수업체 등에 초점을 맞춰 점수를 매겼다. 선정된 제품군은 인삼디저트류, 어린이 홍삼, 홍삼 활용 화장품류 등이 선정됐으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수행기관인 금산인삼아로초산업진흥원은 최종 선정 업체의 제품개발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제품개발 및 마케팅 컨설팅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비이더 및 유통전문가를 초청해 품평회를 개최하고 향후 금산세계인삼축제 및 국내외 전시회에 참여해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인삼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금산인삼의 세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금산을 세계 인삼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신관동 도시계획도로 5일 임시 개통

공주시, 교통 혼잡 해소·접근성 향상·교통안전 확보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신관동 공주대학교 공영주차장에서 주공4차(대아) 아파트를 잇는 도시계획 도로를 오는 5일 임시 개통한다. 임시 개통하는 구간은 총연장 690m, 왕복 4차로로 지난 2019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올 5월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 210 억원이 소요됐으며, 시는 도로 시설물과 미비 사항을 보완해 다음 달 준공할 예정으로 이에 앞서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임시 개통한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도로가 개통되면 국도32호에서 공주대학교 인접 도로를 통해 신관동 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분산 효과로 교통 혼잡 해소와 접근성 향상,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공주=정성범기자



에스더블유기업(주) SW

명성레포츠



대전교육청, 2024년 대전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격려



우승정보대학 캐나다 현장실습 및 해외취업 본격 추진



녹색어머니회 · 모범안전사회 · 대전경찰 등 곳곳 교통안전 캠페인



목원대 세팍타크로부, 전국대회 2관왕



국가철도공단, 1사1촌 마을 식목 및 농촌봉사활동 시행



건협 대전충남지부,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2년간 대전시 건축·도시·디자인 정책 총괄 조정 및 자문 역할 수행 제3대 총괄건축가에 이진숙 충남대 교수 위촉

대전시는 3일 충남대학교 제19대 총장을 역임한 이진숙 <왼쪽 사진> 교수를 대전광역시 제3대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대전시의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건축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진숙 총괄건축가는 충남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취득 후 일본 도쿄공업대에서 박사를 취득했으며, 1989년부터는 충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이력을 쌓았다.



2020년에 제19대 충남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올해 2월에 4년의 임기를 마쳤으며, 현재는 충남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진숙 총괄건축가는 앞으로 2년간 대전시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과 주요 공공건축물 및 공공환경사업의 기획, 기본설계에 대한 총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건축정책 관련 대전시 의사결정기구

인 건축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도 함께 맡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만의 독특한 매력과 문화를 반영한 혁신적인 건축디자인 적용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라며 "총괄건축가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가 디자인 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진숙 총괄건축가는 "앞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적용으로 대전이 디자인 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내 삶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백석문화대, KBS 이소정 기자 특강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는 3일 오전 10시, 교내 백석홀 소강당에서 KBS 이소정 기자를 초청해 '내 그릇 키우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소정 기사는 '지상과 첫 여 성 메인 앵커'로 'KBS 뉴스 9'을 약 4년간 진행했다.

강단에 오른 이 기사는 자신이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어떤 강변들을 넘어왔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소개하며 강연을 진행했다.



서구, 청년 활력일자리 창출 협약

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상생 방안 마련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3일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K-안전화 전문기업인 한스산업과 '청년, 활력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과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구는 ▲인력풀 제공 ▲취업 관련 고용서비스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기업은 ▲구인 정보 제공 ▲채용 시 서구 청년 우선 고용 등 일자리 제공을 위해 협력한다.

서철모 구장은 "국내 또는 해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 발굴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려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IT산업 심장 판교테크노밸리에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 첫 삽

판교테크노밸리에 물을 이용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



대한민국 IT산업의 핵심지역인 판교테크노밸리에 물을 이용한 친환경 수열에너지가 도입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와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으로 '판교 641 프로젝트'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한다.

'판교 641 프로젝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에 (주)엔씨소프트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각각 글로벌R&D센터와 업무복합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 3일 기공식이 열렸다. 이 사업

은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 사업지 중 첫 번째 사업이다.

수열에너지란 물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철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온도를 에너지를 저장하여 건축물 등의 난방을 하는 친환경 에너지이다. 도시 인근의 하천수 등을 활용하므로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산되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공공·지자체 소유 건축물 등에 수열에너지 도입 시 설계·시공비율 50%를 국고로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여 수열에너지 확산을 꾀하고 있다. 이영복기자

도공 대전충남본부, 대덕구와 '비래동 공영주차장 조성' 협약

주차공간 부족해 불편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 해결 등

신규성 한국도로공사대전충남본부장은 3일 대덕구에서 최구장 오른쪽과 '비래동 공영주차장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한편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공 대전충남

본부장은 비래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에 편입되는 토지를 대덕구에 무상제공하게 되며, 대덕구는 대상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덕구는 대전지역 고속도로를 아름답고 밝게 만들기 위한 고속도로 꽃길 조성에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신규성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민 편의시



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제2기 아산시 '맛객단' 위촉

아산시는 아산시 맛집 SNS 서포터즈인 '제2기 아산시 맛객단' 20명을 선발해 지난달 29일, 위촉식을 가졌다.

제2기 아산시 '맛객단'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산시의 대표 맛집과 특화 거리 음식점을 방문 시식한 후 그 후기를 SNS에 올리고, 자신만의 아산시 '숨은 맛집'을 발굴해 아산의 음식문화를 대내외

로 알리는 'SNS 서포터즈' 임무를 수행한다.

블로그 위주의 활동을 운영했던 작년 제1기 활동에서 더 나아가 올해 제2기 아산시 '맛객단'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틱톡, 쇼츠 등의 콘텐츠도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예산군 추사고택,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수선화만개 예산군 관광시설 사업소는 포근한 봄 날씨에 추사고택을 방문객 주연서 수선화의 꽃이 만개했다. 추사고택은 추사김경의 선생이 사랑했던 수선화가 노란 물결로 화사하게 빛나고 있으며, 목련, 매화, 산수유 등 수선화 외에도 다양한 봄꽃이 어우러져 매년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강한 초동아 돌봄 질적 향상 기대

순·오·공센터,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와 업무협약



▲대전 아동의 돌봄과 양육자의 역량 지원에 필요한 지역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대전의 양육 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올해는 돌봄 기관에 종사하는 관리자들이 돌봄 기관을 운영하고 돌봄 이동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돌봄 관리자 전용 앱을 개발하여 돌봄 현장의 불편함을 줄이고 대전 시민의 편의성이 강화됐다.

자세한 내용은 www.daejeon.or.kr 대전형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대전아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서울 광진구, 청양군 경로당 급식사업 견학

서울시 광진구 직원들이 지난 2일, 청양군의 경로당 점심 지원 사업을 견학하고 돌아갔다. 청양군의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은 군내 생산 농산물 등의 식자재 구매를 주 1회 선정된 경로당에 배송하는 사업으로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군은 연차별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광진구 직원들은 청양지역의 경로당 공공 급식 현황 설명 청취에 이어 지역활성화재단을 방문해 재단의 역할과 배송 준비 과정, 배송 현황을 확인하는 등 전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양=정성범기자



## 진료과목

내과 | 외과 | 가정의학과 | 정형외과 | 이비인후과 | 물리치료



## 디딤돌유성의원

디딤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3월 4일 진료개시

유성온천역 4번출구 바로앞

지역주민분들을 위한 **건강한 삶, 함께하는 기쁨**  
**세심한 진료와 정확한 진단**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물리치료실  
운영



X-RAY실  
최신검사장비



수액실  
운영

### 진료시간

평 일: 오전 9:00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2:00 ~ 오후 1:00  
토 요 일: 오전 9:00 ~ 오후 1:30

### 오시는 길



문의 **042.721.7505**